

생활 체육인들의 대축제, 이제는 관광도 함께 즐긴다

전 세계 생활 체육인들의 대 축제인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2023년 5월 12~20일 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 된다.



이 대회는 생활 체육인들이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다. 현재는 성별 인종 종교 능력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전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와 경기를 즐긴다.

이는 각 국가에서 참가대표단을 구성해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 을 각자 신청해 참가하기 때문에 대회 참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경기성적보다는 스

2023년 5월 12~20일 전북 일원서 개최 '아·태 마스터스 대회'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중점... 스포츠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조직위, 추진체계·경기운영·안전 등 38개 과제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스포츠에 대한 열정, 경기참여의 즐거움, 관광 여행 및 문화체험이 대회 참가 목적이다. 또한 스포츠대회지만 스포츠를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과 여행상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행사라는 특징을 잘 활용해 도내 경제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기간 약 1만명 이상의 참가자와 동반자들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 조직위는 전북도에서 활발히 운영 중

인 투어패스와 순환관광,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지역별 대표 관광콘텐츠를 여러 가지 테마로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회와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시기를 조율해 전북을 방문하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여행체험1번지 전북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28개 종목에 참가 선수와 동반 인을 포함해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회 조직위는 대회 인지도와 해외 참가자모집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모

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여행사, 재외한인체육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폭넓은 해외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여 간 대회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추진체계, 경기운영, 자원봉사, 참가자 모집 홍보 관광프로그램 개발, 개·폐회식, 교통·수송, 안전·방역 등 10개 분야 38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보완했다.

또 전북도와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8개분야 56개의 협업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와 조직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회 정체성 확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심볼마크, 마스코트 등 상징물도 확정했다.

대회 인지도 제고와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나태주와, 16개국 재외한인체육단체회장을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 했다. 특히, 대회 분위기를 위한 언택트 천사마

라톤대회에 1,767명이 참가, 2,500만원을 전액 기부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도내 체육단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했고, 대한체육회 실무협의, 국내 참가선수 편의지원 대책 마련 등 체육인 및 체육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가졌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실행 로드 맵에 따라 분야별로 대회 준비와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물자 및 인력조사, 매뉴얼 제작을 추진 중이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대회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층이 40~50대로 경제소비 주체들인 점을 감안해 참가자들이 대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북 관광을 하러온 것으로 만들겠다"며 "대회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기타 국제교류나 행사 유치 시 관광 홍보자료도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씨름계 '전북의 별', 전국대회 3위 입상

동국대 사범대 부속 금산중 이태민, 경남 창원 학산배 대회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학교 장 박기남) 씨름부 이태민 선수가 지난 10월 28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문화 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학산배전국장사 씨름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는 전북 최대 규모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송민수 감독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으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이렇듯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학교 씨름부 감독 교사는 전북도와 김제시가 지원하는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은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예체능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사비, 장비 구입, 훈련 및 경기 출전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는 작년년부터 '전북의 별'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훈련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씨름부 이태민이 상장을 들어보고 있다.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하,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4일 세계태권도연맹 회의실에서 가졌다. 사진은 협약식 참석자들이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 6월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무주 태권도원서 개최...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양진방)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하, 그랑프리 챌린지)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4일 세계태권도연맹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개최식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G1 등급의 국제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첫 단계이다. 협약식에는 대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 구성, 대회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6월 개최할 '그랑프리 챌린지'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이후 5년 만에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로 남녀 각 4개 체급씩 열린다.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른 랭킹 포인트

를 부여하고 특히, 체급별 1위와 2위 입상자는 10월에 예정된 맨체스터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은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국가 태권도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최 도시 협약식에 이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국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응원 메시지를 송환에 작성해 오응환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의의회
BUAN COUNTY COUNCIL
축! 전주매일 창간

#부안군의의회 임시회

#부안군의의회 현장방문

2021년 부안군의의회 회기 일정

· 제326회 정례회(11. 16. ~ 12. 16.) : 행정사무감사 및 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부안군의의회 클린민원 상담센터 운영

· 접수내용 : 군정에 관한 내용 중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 접수문의 : 부안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063-580-4092

<https://council.buan.go.kr>